

희망을 잡는 그대, 언제나 봄

나이든 청춘 이야기

김 학 순

경향신문 신문발전연구소 소장

'스무살 노인, 예순살 청춘' 이란 말처럼 육신의 나이테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바로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실업대란에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 많다. 다시 맞는 새 봄에 떠올려 보는 '청춘'의 의미를 통해 시대의 절망을 이겨낼 희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새뮤얼 올먼의 시 '청춘'은 민태원의 서정적 수필 '청춘예찬'처럼 언제 읽어도 울림이 크다.

(2페이지 여느글 참조)

나이든 청춘의 이야기

유대인 랍비로서 평생토록 교육과 봉사활동을 펼친 올먼은 이 시를 일흔여덟 살 때 썼다. 이 시에는 수많은 일화가 따라다닌다. 쉬우면서도 더없이 감동적이기 때문이리라.

무엇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생의 애송시(愛誦詩)로 삼은 명성은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드날릴 게 분명하다. 맥아더가 2차 세계대전 초기 필리핀에서 호주로 후퇴한 뒤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한 친구가 위로 편지에 이 시를 동봉했다고 한다.

그 때부터 맥아더는 이 시를 좌우명처럼 사무실에 걸어 놓았다. 그가 1952년 한국전쟁에서 퇴역한 후 16년만에 귀국해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명언 설을 남긴 것도 이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일흔다섯번째 생일인 1955년 1월 2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도 올먼의 시를 인용하며 '난 아직 젊다'는 사자후를 토해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맥아더가 일본에 진주했을 당시에도 이 시는 그의 책상머리에 어김없이 놓여 있었다.

이 시를 본 일본 기업경영자들이 너무나 감명을 받은 나머지 창립기념일이나 공장준공식 때면 사원들에게 기념품처럼 나눠 주기도 했을 정도다.

특히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귀재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스노케는 이 시를 가장 애송했던 것으로 전해 내려온다.

그는 일흔 살 때 노쇠해 가는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로 중요한 사업 확장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 두렵기 짝이 없었다.

바로 그때 그는 올만의 시 '청춘'을 접하게 됐고, 이 시에서 열정과 원기를 얻어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자필로 사본을 만들어 세계 곳곳의 내셔널 직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마쓰시타의 파나소닉 부문 사업은 그렇게 해서 번창할 수 있었고, 그는 아흔 살까지 살았다.



존 글렌 미 상원의원이 일흔 여덟 살 고령으로 우주비행에 제도전해 성공한 것도 '청춘'의 정신 덕분이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톤 그리고리 예비치 루빈스타인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레코드를 내놓기 시작한 것은 그가 일흔 살이 넘어서부터였다. 그는 '나도 70세가 되었으니 이제 서서히 모차르트 협주곡을 연주해도 괜찮겠지'라고 기염을 토했다.

세기적(世紀的)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은 "당신의 대표작품은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의 베스트 작품은 바로 다음 번에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받아넘기곤 했다.

채플린은 스스로 언제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원한 현역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도 "큰일을 이루려면 늙어서도 청춘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곤 했다.

청춘, 절망을 이겨내는 한줄기 희망

국내에선 지난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최고령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경상

대학에 거뜬히 합격한 조희중 할아버지(69)의 사례가 나이든 '청춘'을 사는 멋진 예화다. 뿐만 아니라 40년 이상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는 한 여가수의 좌우명은 '평생청춘'이었다.

청춘은 따지고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말(keyword)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같은 냉소적 패러디로 다가오는 초기 대량실직시대의 절망에는 폐부를 찌르며 감전되는 듯한 언어다.

젊은이들은 월탄 박종화가 읊은 오뇌(懊惱)의 '청춘'에 누구보다 가깝다. 실업 대란에 꿈을 잃은 '나이든 젊은이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열쇠를 바로 울먼의 '청춘'서 찾아도 좋을 성싶다.

'스무살 노인, 예순살 청춘'이란 흔한 속설에서 보듯이 육신의 나이테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못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지 않고 안으로 갈 무리하는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이든 청춘'의 실천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다시 맞는 새 봄에 떠올려 보는 '청춘'은 그래서 시대의 절망을 이겨낼 한줄기 희망이 아닐까 싶다.